



## 모나드론 (1714)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무한( $\infty$ )한 모나드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론.

*인쇄일: December 24, 2024*

CosmicPhilosophy.org  
철학을 통해 우주 이해하기

# 목차

## 1. 서문

## 2. 모나드론

2.1. § 1

2.2. § 2

2.3. § 3

2.4. § 4

2.5. § 5

2.6. § 6

2.7. § 7

2.8. § 8

2.9. § 9

2.10. § 10

2.11. § 11

2.12. § 12

2.13. § 13

2.14. § 14

2.15. § 15

2.16. § 16

2.17. § 17

2.18. § 18

2.19. § 19

2.20. § 20

2.21. § 21

2.22. § 22

2.23. § 23

2.24. § 24

2.25. § 25

2.26. § 26

2.27. § 27

2.28. § 28

2.29. § 29

2.30. § 30

2.31. § 31

2.32. § 32

2.33. § 33

2.34. § 34

2.35. § 35

2.36. § 36

2.37. § 37

2.38. § 38

2.39. § 39

2.40. § 40

2.41. § 41

2.42. § 42

---

2.43. § 43

---

2.44. § 44

---

2.45. § 45

---

2.46. § 46

---

2.47. § 47

---

2.48. § 48

---

2.49. § 49

---

2.50. § 50

---

2.51. § 51

---

2.52. § 52

---

2.53. § 53

---

2.54. § 54

---

2.55. § 55

---

2.56. § 56

---

2.57. § 57

---

2.58. § 58

---

2.59. § 59

---

2.60. § 60

---

2.61. § 61

---

2.62. § 62

---

2.63. § 63

---

2.64. § 64

---

2.65. § 65

---

2.66. § 66

---

2.67. § 67

---

2.68. § 68

---

2.69. § 69

---

2.70. § 70

---

2.71. § 71

---

2.72. § 72

---

2.73. § 73

---

2.74. § 74

---

2.75. § 75

---

2.76. § 76

---

2.77. § 77

---

2.78. § 78

---

2.79. § 79

---

2.80. § 80

---

2.81. § 81

---

2.82. § 82

---

2.83. § 83

---

2.84. § 84

---

2.85. § 85

---

2.86. § 86

---

2.87. § 87

---

2.88. § 88

---

2.89. § 89

---

2.90. § 90

#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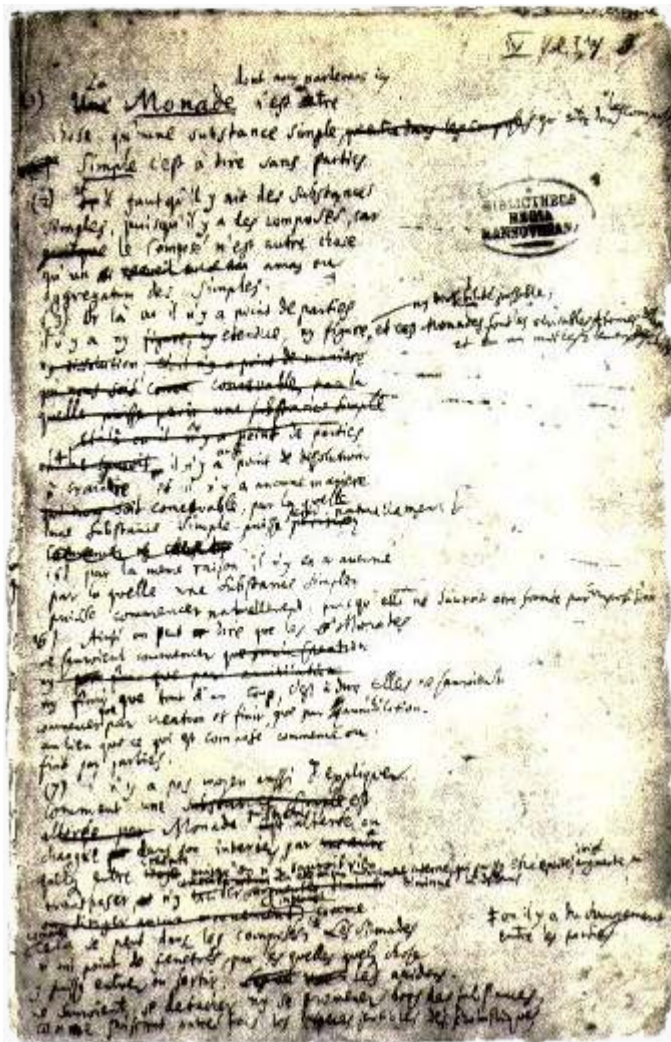
##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1714)

**1** 714년,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 세계 최후의 보편적 천재는 무한 모나드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물리적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고 현대 과학적 실재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대 물리학의 발전, 특히 비국소성의 관점에서 재고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고대 그리스의 우주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나드 이론은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설명된 플라톤의 형상계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모나드론(프랑스어: La Monadologie, 1714)은 라이프니츠의 후기 철학 중 가장 잘 알려진 저작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약 90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짧은 텍스트로, 단순 실체 또는 무한 모나드에 대한 형이상학을 제시합니다.

1712년부터 1714년 9월까지 빈에서의 마지막 체류 기간 동안,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철학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두 편의 짧은 프랑스어 텍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사후, 사보이의 유진 왕자를 위해 쓰여진 이성에 기초한 자연과 은총의 원리가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철학자 크리스티안 볼프와 그의 협력자들은 후에 '모나드론'으로 알려지게 된 두 번째 텍스트를 독일어와 라틴어로 번역하여 출간했습니다.



## 제 2. 장

# 모나드론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1714년

Principia philosophiæ seu theses in gratiam principis Eu-genii conscriptæ

## § 1

여기서 논할 모나드는 복합체를 구성하는 단순 실체에 다름 아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신의론, § 10<sup>4</sup>).

## § 2

복합체가 있으므로 단순 실체가 있어야만 한다. 복합체란 단순한 것들의 집적 또는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 3

부분이 없는 곳에는 연장도, 형태도, 분할 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모나드들은 자연의 진정한 원자이며 한마디로 만물의 요소이다.

## § 4

또한 해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 실체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어떠한 상상 가능한 방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89).

## § 5

같은 이유로 단순 실체가 자연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합성에 의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 § 6

따라서 모나드는 단번에만 시작하거나 끝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창조에 의해서만 시작할 수 있고 소멸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다. 반면에 복합체는 부분에 의해 시작하거나 끝난다.

## § 7

어떤 모나드가 다른 피조물에 의해 내적으로 변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수 없다. 모나드 안에서는 아무것도 옮길 수 없고, 자극되거나 지시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어떤 내적 운동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부분들 사이에 변화가 있는 복합체에서는 가능하다. 모나드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없다. 우연적 속성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가시적 종처럼 실체로부터 분리되어 밖으로 나돌아 다닐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실체나 우연적 속성도 외부로부터 모나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 § 8

그러나 모나드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자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단순 실체들이 그들의 성질에 의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사물들의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복합체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구성요소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드들이 성질이 없다면, 양에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총만이 가정된다면, 각 장소는 운동에서 항상 이전에 가졌던 것과 동등한 것만을 받게 될 것이고, 한 상태는 다른 상태와 구별 불가능할 것이다.

## § 9

각 모나드는 다른 모든 모나드와 달라야만 한다. 자연에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고 내적 차이나 내재적 특성에 기초한 차이를 찾을 수 없는 두 존재자가 결코 없기 때문이다.

## § 10

나는 또한 모든 피조물이 변화의 대상이며, 따라서 피조된 모나드도 그러하고, 더욱이 이 변화가 각각에서 연속적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 11

우리가 방금 말한 것으로부터, 모나드의 자연적 변화는 *내적 원리*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 원인이 그것의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96, § 900).

## § 12

그러나 변화의 원리 외에도 단순 실체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이루는, 말하자면 *변화하는 것의 세부사항*이 있어야만 한다.

## § 13

이 세부사항은 하나 안의 다수 또는 단순한 것 안의 다수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자연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므로,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남는다. 따라서 단순 실체 안에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태와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 § 14

하나 안의 다수 또는 단순 실체 안의 다수를 포함하고 표상하는 일시적 상태는 *지각*이라고 불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것처럼 통각 또는 의식과 구별되어야 한다.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지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오직 정신만이 모나드이며 동물의 영혼이나 다른 엔텔레키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긴 기절 상태를 엄밀한 의미의 죽음과 혼동했으며, 이는 그들이 영혼의 완전한 분리라는 스콜라적 편견에 빠지게 했고, 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정신들이 영혼의 사멸성이라는 견해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 § 15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의 변화나 이행을 만드는 내적 원리의 작용은 욕구라고 불릴 수 있다. 욕구가 자신이 지향하는 전체 지각에 항상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항상 무언가를 얻어내고 새로운 지각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 § 16

우리가 의식하는 가장 작은 생각조차도 대상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단순 실체 안의 다수성을 직접 경험한다. 따라서 영혼이 단순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나드 안의 이러한 다수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베일 씨는 자신의 사건의 *로라리우스* 항목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어려움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

## § 17

게다가 지각과 그것에 의존하는 것들은 *기계적 이유들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형태와 운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같은 비율을 유지한 채 확대하여 마치 방앗간처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 내부를 살펴보면, 서로를 밀어내는 부품들만 발견할 뿐, 지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각은 복합체나 기계가 아닌 단순 실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단순 실체 안에서는 지각들과 그것들의 변화만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 실체들의 모든 내적 활동은 오직 이것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서문 \*\*\*, 2 b<sup>5</sup>).

## § 18

모든 단순 실체 또는 창조된 모나드를 엔텔레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완전성(*échousi to entelés*)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의 내적 활동의 원천이 되게 하고, 말하자면 비물질적 자동기계가 되게 하는 자족성(*autarkeia*)이 있기 때문입니다 (§ 87).

## § 19

내가 방금 설명한 일반적 의미에서 *지각과 욕구*를 가진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려 한다면, 모든 단순 실체나 피조된 모나드들을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각은 단순한 지각 이상의 것이므로, 나는

단지 그것만을 가진 단순 실체들에게는 모나드와 엔텔레키라는 일반적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각이 더 뚜렷하고 기억을 동반하는 것들만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한다.

## § 20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떠한 뚜렷한 지각도 없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기절했을 때나 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혼은 단순 모나드와 감각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지속적이지 않고 영혼이 그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혼은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64).

## § 21

그렇다고 해서 단순 실체가 어떠한 지각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순 실체는 소멸할 수 없고, 지각에 다름 아닌 어떤 변용 없이는 존속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것이 없는 수많은 작은 지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지러워집니다. 마치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돌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기절하게 할 수도 있는 현기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음은 동물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줄 수 있습니다.

## § 22

그리고 모든 단순 실체의 현재 상태는 자연스럽게 이전 상태의 결과이므로,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 360).

## § 23

따라서,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의 지각을 *인식하게* 되면, 비록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직전에 지각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각은 자연적으로 다른 지각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이 자연적으로 운동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401-403).

## § 24

이를 통해 우리는 만약 우리의 지각들 중에 뚜렷하고 말하자면 두드러지며, 더 높은 취향의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어지러운 상태에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 모나드들의 상태입니다.

## § 25

또한 우리는 자연이 동물들에게 두드러진 지각들을 부여했음을 봅니다. 자연이 그들에게 여러 빛줄기나 공기의 파동을 모아서 그것들의 결합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지게 하는 기관들을 제공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

니다. 후각, 미각, 촉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며,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많은 감각들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기관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표상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 26

기억은 영혼들에게 이성을 모방하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일종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동물들이 자신들을 강하게 자극하는 어떤 것을 지각하고, 이전에 비슷한 지각을 가졌을 때, 기억의 표상을 통해 이전 지각에서 결합되어 있던 것을 기대하고 그때 가졌던 것과 비슷한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들어, 개들에게 막대기를 보여주면, 그들은 막대기가 그들에게 준 고통을 기억하고 짖으며 도망칩니다(서론<sup>6</sup>, § 65).

## § 27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강한 상상력은 이전 지각들의 크기나 다수성에서 옵니다. 강한 인상이 단번에 오랜 습관이나 여러 번 반복된 많은 중간 정도의 지각들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28

인간들은 그들의 지각의 연속성이 단지 기억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짐승들처럼 행동합니다. 이론 없이 단순한 실천만을 가진 경험적 의사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4분의 3에서 단지 경험론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경험론자처럼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천문학자만이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 § 29

하지만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단순한 동물들과 구별하고 우리에게 이성과 과학을 가지게 하며, 우리 자신과 신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를 고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성적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 § 30

또한 필연적 진리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들의 추상을 통해 우리는 반성적 행위들로 고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라고 불리는 것과 이것 저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존재, 실체, 단순한 것과 복합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과 신 자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한정된 것이 신 안에서는 한계 없이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행위들이 우리의 추론의 주요 대상들을 제공합니다(신의론, 서문 \*, 4, a<sup>7</sup>)

## § 31

그리고 이것은 단순 실체가 어떠한 지각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론은 두 가지 위대한 원리에 기초합니다. 하나는 모순율로, 이를 통해 우리는 모순을 포함하는 것을 거짓으로, 거짓과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참으로 판단합니다(§ 44, § 196).

## § 32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충족이유율로,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실도 참이거나 존재할 수 없고, 어떠한 진술도 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그러하고 다르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비록 이러한 이유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44, § 196).

## § 33

또한 진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추론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입니다. 추론의 진리는 필연적이며 그 반대는 불가능하고, 사실의 진리는 우연적이며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 진리가 필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여 더 단순한 관념들과 진리들로 분해함으로써 원초적인 것들에 이를 때까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0, 174, 189, § 280-282, § 367. 요약 반론 3).

## § 34

이는 수학자들에게서 사변적 정리들과 실천적 규칙들이 분석을 통해 정의들, 공리들, 요청들로 환원되는 것과 같습니다.

## § 35

마지막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단순 관념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리들과 요청들, 즉 원초적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증명될 수 없고 증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 반대가 명백한 모순을 포함하는 동일률적 진술들입니다(§ 36, 37, 44, 45, 49, 52, 121-122, 337, 340-344).

## § 36

하지만 충분 이유는 우연적 진리들 또는 사실의 진리들에서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즉, 피조물들의 우주에 퍼져 있는 사물들의 연속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특수한 이유들로의 분해는 자연의 사물들의 엄청난 다양성과 물체들의 무한한 분할 때문에 끝없는 세부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의 작용인에는 무한한 현재와 과거의 형태들과 운동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인에는 내 영혼의 현재와 과거의 무한한 작은 경향들과 성향들이 들어있습니다.

## § 37

그리고 이 모든 세부사항이 각각 비슷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선행하는 우연적인 것들 또는 더 상세한 것들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 이유 또는 최종 이유는 이 우연적인 것들의 세부사항이나 계열의 바깥에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것이 무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 § 38

그리고 이처럼 사물들의 최종적 이유는 필연적 실체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변화들의 세부사항은 마치 근원에서처럼 탁월한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

## § 39

이제 이 실체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세부사항의 충분한 이유이므로, 오직 하나의 신만이 있고, 이 신으로 충분합니다.

## § 40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이 최고 실체가 자신 밖에 자신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을 가지지 않고, 가능한 존재의 단순한 결과이므로, 한계를 가질 수 없고 가능한 한 많은 실재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41

따라서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완전성이란 한계나 경계가 있는 것들에서 그 한계를 제외하고 정확히 취해진 실재성의 크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계가 전혀 없는 곳, 즉 신 안에서는 완전성이 절대적으로 무한하다(§ 22, 서문 \*, 4 a).

## § 42

피조물들은 신으로부터 그들의 완전성을 얻지만, 한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들 고유의 본성으로부터 불완전성을 갖는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신과 구별되는 점이다. 피조물의 이러한 본원적 불완전성은 물체의 자연적 관성에서 드러난다(§ 20, 27-30, 153, 167, 377 이하).

## § 43

신 안에는 실존의 원천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한에서의 본질들의 원천, 즉 가능성 안에 있는 실재적인 것의 원천도 있다는 것도 참이다. 왜냐하면 신의 지성이 영원한 진리들의 영역, 또는 그것들이 의존하는 관념들의 영역이며, 신이 없다면 가능성들 안에 실재적인 것이 없을 것이고, 실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 § 44

만약 본질들이나 가능성들 안에, 또는 영원한 진리들 안에 어떤 실재성이 있다면, 이 실재성은 실존하고 현실적인 어떤 것에 기초해야만 하며, 따라서 본질이 실존을 포함하거나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이 되기에 충분한 필연적 존재자의 실존에 기초해야만 한다 (§ 184-189, 335).

## § 45

따라서 신만이(또는 필연적 존재자만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실존해야 한다는 특권을 가진다. 어떤 한계도, 어떤 부정도, 따라서 어떤 모순도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가능성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선행적으로 신의 실존을 알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진리들의 실재성을 통해서도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이를 후험적으로도 증명했는데, 우연적 존재자들이 실존하고, 이들은 자신의 실존 이유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필연적 존재자 안에서만 그들의 최종적이고 충족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46

그러나 일부 사람들처럼, 영원한 진리들이 신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임의적이며 그의 의지에 의존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데카르트와 그 후에 포아레가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리가 적합성 또는 최선의 선택인 우연적 진리들에 대해서만 참이다. 반면 필연적 진리들은 오직 그의 지성에만 의존하며, 그것의 내적 대상이다 (§ 180-184, 185, 335, 351, 380).

## § 47

따라서 신만이 원초적 단일체 또는 원초적 단순실체이며, 모든 창조되거나 파생된 모나드들은 그것의 산물이고, 말하자면 순간순간 신성의 지속적인 번쩍임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는 한계 지어짐이 본질적인 피조물의 수용성에 의해 제한된다 (§ 382-391, 398, 395).

## § 48

신 안에는 모든 것의 원천인 힘이 있고, 그 다음으로 관념들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인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최선의 원리에 따라 변화나 산출을 만드는 의지가 있다 (§ 7, 149-150). 그리고 이는 창조된 모나드들에서 주체나 기초, 지각 능력과 욕구 능력을 이루는 것에 상응한다. 그러나 신 안에서 이러한 속성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하거나 완전하다. 반면 창조된 모나드들 또는 엔텔레키들(또는 헤르몰라우스 바르바루스가 이 말을 번역한 대로 완성가능체들)에서는 완전성이 있는 정도에 따라 이것들의 모방에 불과하다 (§ 87).

## § 49

피조물은 완전성을 가진 한에서 외부에 대해 작용하고, 불완전한 한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수동한다고 말해진다. 따라서 모나드가 판명한 지각들을 가진 한에서는 작용이, 혼연한 지각들을 가진 한에서는 수동이 귀속된다 (§ 32, 66, 386).

## § 50

그리고 한 피조물이 다른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은,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선험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그것이 다른 것에 작용한다고 말한다.

## § 51

그러나 단순실체들에서는 한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에 대해 관념적 영향만을 미칠 뿐이며, 이는 신의 개입을 통해서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신의 관념들 안에서 한 모나드가 신이 사물들의 시초부터 다른 모나드들을 규제할 때 자신을 고려해달라고 합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창조된 모나드는 다른 모나드의 내부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한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에 대해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 (§ 9, 54, 65-66, 201. 요약 반론 3).

## § 52

그리고 이를 통해 피조물들 사이에서 작용과 수동이 상호적이 된다. 신이 두 단순실체를 비교할 때, 각각에서 다른 하나를 그것에 맞추도록 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능동적인 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수동적이다. 즉, 그 안에서 판명하게 인식되는 것이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의 이유를 제공하는 한에서는 능동적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이유가 다른 것 안에서 판명하게 인식되는 것에서 발견되는 한에서는 수동적이다 (§ 66).

## § 53

신의 관념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 세계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만이 실존할 수 있으므로, 신이 하나를 다른 것보다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충족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 8, 10, 44, 173, 196 이하, 225, 414-416).

## § 54

그리고 이 이유는 오직 적합성 또는 이 세계들이 포함하는 완전성의 정도들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각각의 가능한 것은 그것이 포함하는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실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 74, 167, 350, 201, 130, 352, 345 이하, 354).

## § 55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것의 실존 원인이다. 지혜가 신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선성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며, 힘이 그것을 산출하게 한다(§ 8,7, 80, 84, 119, 204, 206, 208. 요약 반론 1, 반론 8).

## § 56

이제 이러한 모든 창조된 것들의 서로에 대한 *연관* 또는 조화는 각각의 단순실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관계들을 가지게 하며, 따라서 그것은 우주의 영구적인 생명의 거울이 된다(§ 130,360).

## § 57

그리고 같은 도시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원근법적으로 다양화되는 것처럼, 무한히 많은 단순 실체들로 인해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우주들이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것들은 각 모나드의 서로 다른 관점들에 따른 하나의 우주의 전망들일 뿐이다.

## § 58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한 최대의 질서와 함께 가능한 한 많은 다양성을 얻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이것이 가능한 한 많은 완전성을 얻는 방법이다(§ 120, 124, 241 이하, 214, 243, 275).

## § 59

또한 (내가 감히 증명되었다고 말하는) 이 가설만이 신의 위대함을 마땅히 드높인다. 베일 씨는 자신의 사전 (항목 *로라리우스*)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를 인정했는데, 심지어 내가 신에게 가능한 것 이상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실체가 자신이 가진 관계들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을 정확히 표현하게 만드는 이 보편적 조화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이유도 제시할 수 없었다.

## § 60

내가 방금 언급한 것에서 우리는 사물이 다르게 될 수 없는 선형적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전체를 규제할 때 각 부분, 특히 표상적 본성을 가진 각 모나드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사물의 일부만을 표상하도록 제한될 수 없습니다. 비록 전체 우주의 세부적인 표상은 혼란스럽고, 각 모나드와 관련하여 가장 가깝거나 가장 큰 것들, 즉 사물의 작은 부분에서만 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 모나드는 신성이 될 것입니다. 모나드들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형에서 제한됩니다. 그들은 모두 무한과 전체로 혼란스럽게 나아가지만, 명확한 지각의 정도에 의해 제한되고 구별됩니다.

## § 61



그리고 복합체는 단순체와 이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 모든 물질이 연결되어 있고, 가득 찬 공간에서 모든 운동이 거리에 비례하여 멀리 있는 물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물체는 자신과 접촉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며, 또한 그들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접촉하는 첫 번째 것들과 접촉하는 것들도 느낍니다. 이러한 소통은 어떤 거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물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을 보는 자는 각각에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과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서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멀리 있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말입니다. 만물은 호흡한다고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신 안에 명확하게 표상된 것만을 읽을 수 있으며, 무한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든 주름을 한 번에 펼칠 수는 없습니다.

## § 62

따라서 각각의 창조된 모나드가 우주 전체를 표상하지만, 특별히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고 자신이 엔텔레케이아가 되는 신체를 더 명확하게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는 총만 속에서 모든 물질의 연관을 통해 우주 전체를 표현하므로, 영혼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속하는 이 신체를 표상함으로써 우주 전체를 표상합니다(§ 400).

## § 63

모나드에 속하는 신체는 그것의 엔텔레케이아 또는 영혼과 함께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구성하고, 영혼과 함께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때 생명체나 동물의 신체는 항상 유기적입니다. 모든 모나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주의 거울이고 우주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규제되어 있으므로, 표상하는 것, 즉 영혼의 지각 속에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주가 표상되는 방식에 따라 신체 속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03).

## § 64

따라서 생명체의 각 유기체는 일종의 신성한 기계 또는 자연적 자동기계로서, 모든 인공적 자동기계를 무한히 능가합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든 기계는 각각의 부분에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황동 톱니바퀴의 이빨은 더 이상 인공적인 것이 아닌 부분이나 파편들을 가지고 있으며, 톱니바퀴가 의도된 용도와 관련하여 기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기계, 즉 생명체들은 그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무한히 기계입니다. 이것이 자연과 기술의 차이, 즉 신성한 기술과 우리의 기술의 차이입니다(§ 134, 146, 194, 483).

## § 65

그리고 자연의 창조자는 이 신성하고 무한히 경이로운 기술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각 부분이 고대인들이 인정했듯이 단지 무한히 분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끝없이 하위분할되어 있어서, 각 부분이 각각 고유한 운동을 가진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질의 각 부분이 전체 우주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문 [일치론], § 70. 신정론, §195).

## § 66

이를 통해 물질의 가장 작은 부분에도 피조물, 생명체, 동물, 엔텔레키,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67

물질의 각 부분은 식물이 가득한 정원이나 물고기가 가득한 연못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각 가지, 동물의 각 지체, 그 체액의 각 방울도 또한 그러한 정원이나 연못입니다.

## § 68

정원의 식물들 사이에 있는 흙과 공기, 또는 연못의 물고기들 사이에 있는 물이 식물이나 물고기는 아니지만, 그것들도 여전히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 § 69

따라서 우주에는 경작되지 않은 것, 불모의 것, 죽은 것이 없으며, 혼돈도 없고, 혼란도 겉보기에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연못을 멀리서 볼 때 물고기들 자체는 구별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움직임과 꿈틀거림만이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 § 70

이를 통해 각 생명체는 동물의 경우 영혼인 지배적 엔텔레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생명체의 지체들은 각각 자신의 엔텔레키나 지배적 영혼을 가진 다른 생명체들, 식물들, 동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71

그러나 내 생각을 잘못 이해한 일부 사람들처럼, 각 영혼이 영원히 자신에게 고유하거나 할당된 물질의 덩어리나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항상 자신의 봉사를 위해 운명지어진 하위의 생명체들을 소유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물체는 강물처럼 영원한 흐름 속에 있으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 § 72

따라서 영혼은 점진적으로만 신체를 바꾸어서, 결코 한 번에 모든 기관을 잃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종종 변태가 있지만, 영혼의 이주나 영혼의 전이는 결코 없습니다. 또한 완전히 분리된 영혼이나 신체 없는 정령도 없습니다. 신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 § 73

이것이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영혼의 분리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생성이나 완전한 죽음이 결코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전과 성장이며,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싸짐과 감소입니다.

## § 74

철학자들은 형상, 엔텔레키, 또는 영혼의 기원에 대해 매우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식물, 곤충, 동물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통해, 자연의 유기체가 결코 혼돈이나 부패로부터 생성되지 않고 항상 씨앗으로부터 생성되며, 그 씨앗에는 분명히 어떤 *전성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체뿐만 아니라 그 안의 영혼, 즉 동물 자체가 수태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수태를 통해 이 동물은 단지 다른 종의 동물이 되기 위한 큰 변형을 준비했을 뿐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 75

수태를 통해 일부가 더 큰 동물의 단계로 상승하는 동물들을 *정자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자신의 종에 머무는 것들, 즉 대부분은 큰 동물들처럼 태어나고, 번식하고, 소멸됩니다.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것은 소수의 선택된 것들뿐입니다.

## § 76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절반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이 자연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끝나지도 않으며, 생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파괴도, 엄밀한 의미의 죽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험적 추론과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선험적으로 도출된 제 원리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 § 77

따라서 파괴될 수 없는 우주의 거울인 영혼이 파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기계가 자주 부분적으로 소멸되고 유기적 외피를 벗거나 취하더라도 동물 자체도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78

이러한 원리들은 제게 영혼과 유기체적 신체의 결합 또는 일치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법칙을 따르고 신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실체들 사이의 예정조화에 의해 만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실체들이 동일한 우주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 § 79

영혼들은 욕구, 목적, 수단을 통해 목적인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물체들은 작용인 또는 운동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그리고 작용인의 영역과 목적인의 영역, 이 두 영역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 § 80

데카르트는 물질 안에는 항상 동일한 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물체에 힘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혼이 물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시대에 물질 내 전체 방향의 보존이라는 자연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를 알았더라면, 그는 내가 주장하는 예정 조화 체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 § 81

이 체계에 따르면, 물체들은 마치 (불가능하지만) 영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작용하고, 영혼들은 마치 물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작용하며, 둘 다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 § 82

정신 또는 이성적 영혼에 관해서는, 비록 제가 모든 생명체와 동물들 안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즉, 동물과 영혼은 세계와 함께 시작되어 세계와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성적 동물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자 상태의 작은 동물들은 처음에는 단지 일반적이거나 감각적인 영혼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선택된 것들이 실제 수태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의 감각적 영혼은 이성의 단계로 고양되어 정신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 § 83

일반적인 영혼들과 정신들 사이에는 제가 이미 일부 언급한 차이점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들은 피조물의 우주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 또는 이미지입니다. 반면 정신들은 신성 자체 또는 자연의 창조자 자체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체계를 이해하고 건축학적 표본을 통해 그것의 일부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신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작은 신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 § 84

이것이 바로 정신들이 신과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은 정신들에 대해 단순히 발명가가 자신의 기계에 대해 갖는 관계(신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은)만이 아니라,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에 대해, 더 나아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 § 85

이로부터 모든 정신들의 집합이 신의 도시를 구성한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완벽한 군주 아래에서 가능한 가장 완벽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 § 86

이 신의 도시, 이 진정으로 보편적인 군주제는 자연 세계 안의 도덕적 세계이며, 신의 작품들 중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의 영광이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위대함과 선함이 정신들에 의해 인식되고 찬탄받지 않는다면 영광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성한 도시와 관련하여 신은 특별히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지혜와 힘은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 § 87

우리가 위에서 자연적 원인과 목적인이라는 두 자연 왕국 사이의 완전한 조화를 확립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물리적 왕국과 은총의 도덕적 왕국 사이의 또 다른 조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주라는 기계의 건축가로서의 신과 정신들의 신성한 도시의 군주로서의 신 사이의 조화를 말합니다 (§ 62, 74, 118, 248, 112, 130, 247).

## § 88

이 조화는 사물들이 자연의 방식을 통해 은총으로 이끌어지게 하며, 예를 들어 이 지구는 정신들의 통치가 요구하는 순간에 자연적 방식으로 파괴되고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이들의 징벌과 다른 이들의 보상을 위해서입니다 (§ 18 sqq., 110, 244-245, 340).

## § 89

또한 우리는 건축가로서의 신이 모든 면에서 입법자로서의 신을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그리고 사물들의 기계적 구조의 힘으로 그 자체로 벌을 받게 되며,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는 물체와 관련하여 기계적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항상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안 되지만 말입니다.

## § 90

마지막으로, 이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는 보상 없는 선한 행위도, 징벌 없는 악한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작용해야 합니다. 즉, 이 위대한 국가에서 불만을 품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후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선의 창조자를 마땅히 사랑하고 본받으며, 진정한 순수한 사랑의 본성에 따라 그의 완전성을 관조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현명하고 덕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추정적 또는 선행적인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 힘쓰게 하며, 동시에 신이 그의 비밀스러운 의지, 즉 결과적이고 결정적인

의지로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에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모든 바람을 뛰어넘는다는 것과, 전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체의 창조자에게 마땅히 속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 존재의 건축가이자 작용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 의지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하는 목적인이며, 오직 그만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문 \*, 4 a b<sup>14</sup>. § 278. 서문 \*, 4 b<sup>15</sup>).

끝

<sup>14</sup> Édit. Erdm., p. 469.

<sup>15</sup> Édit. Erdm., p. 469 b.



## 우주 철학

여러분의 통찰과 의견을 [info@cosphi.org](mailto:info@cosphi.org)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일: December 24, 2024*

CosmicPhilosophy.org  
철학을 통해 우주 이해하기

© 2024 Philosophical.Ventures Inc.